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How Can I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한국 오늘의 양식사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
성령은 누구인가?	13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	17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19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24
원칙 1 :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	26
원칙 2 : 말씀 안에 거하라	28
원칙 3 :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30
원칙 4 : 확신을 가지라	33
내가 성령 충만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	38
잘못된 답 두 가지	45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49
성령 충만함을 알아보는 10가지 질문	53
“어느 성령 충만한 사람”	55
맺는말	59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 명령은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또 우리의 소원이다. 이 작은 책자는 이 질문에 분명한 성경적 대답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충만의 개념과 성령에게서 말하고 있는 성령충만은 의미가 다르다. 성경을 통해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누가 성령의 충만할 수 있으며, 성령충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성령충만의 방법, 증거, 잘못된 의미, 성령충만과 성령세례의 차이, 심지어 성령충만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까지 있어서 간략하면서도 성령충만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준다. 이 책자를 통해 모두 성령충만을 잘 이해하고 성령충만한 사람과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2003년 9월
김 상 복 목사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얻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으면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빠뜨렸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허브 벤더 룩트 목사님은 성경이 이 주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래의 항목들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언”
- 뜨거운 환희
- 성령에게 지배받는 느낌
- 커다란 기쁨에 도취됨
- 성령 안에서 “거꾸러지는 느낌”
- 예언의 능력
- 방언 통역의 능력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

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도 성령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리차드 웬브란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본보기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감옥에서 얻은 채찍에 맞은 상처의 흉터를 아직도 갖고 있는 그는 춥고 아프고 배고팠던 감옥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일을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는 성령 충만의 좋은 예가 됩니다.

몇 년 전 그랜드 래피즈의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이었던 존은 그를 돌보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2년 동안 그는 암에 시달리면서도 기쁨에 넘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던 그 해, 존은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휠체어를 들여놓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으로 많은 요양원 동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에 앉을 수 없게 된 후에는 그의 방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

도를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특권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 2:1-13).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를 들었고 혀 같은 불꽃을 보았고 전혀 배운 적이 없었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그 날 삼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성령충만한 사람 앞에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기쁨이 넘쳐흘렀습니다.”

사도들은 넘치는 용기와 능력으로 용감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적들이 그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행 17:6)이라고 말할 정도로 능력 있는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초기 사도들이 체험한 것과 같은 승리, 같

은 기쁨, 같은 능력을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 충만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 활력이 주는 영향력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우주의 마술사 같은 성격으로 신비롭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는 왔을 때처럼 재빨리 떠나가는 모호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존재하는 인격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며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격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신비한 힘이거

나 이상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다섯 가지의 뚜렷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1. **성령은 “그”라고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그”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 14:16).

2. **성령은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고전 2:10, 11). 인격체만이 이런 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성령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에 나눠주시느니라” (고전 12:11)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성령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롬 15:30) 그리고 슬픔을 느낍니다 (엡 4:30). 단순한 영향력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5. **성령은 활동을 합니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는 말을 합니다 (계 2:7).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롬 8:26). 우리를 가르칩니다 (요 14:26).

인도합니다 (롬 8:14). 감독합니다 (행 10:28). 우리에게 임합니다 (행 1:8).

그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또한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입니다.

1. **그의 이름은 세례식 때와 신약성경의 기도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마 28:19; 고후 13:14).

2.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죄가 드러났을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 5:3, 4).

3. **성령은 “주님”이라고 불립니다** (고후 3:17, 18).

4.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본질이 있습니다.** 영원함 (히 9:14), 편재함(시 139:7-10), 주권 (눅 1:35, 37),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식 (고전 2:10-12)이 그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성령은 인격체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우

리 안에서 살 수 있는지 그 큰 미스테리를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머리로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권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특별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 3:6).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 6:63)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또한 새로워진 그리

스도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롬 8:9). 성령이 내재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첫 선행 조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성령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한다면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곧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엡 5:18)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을 원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스스로 성령께 우리를 맡겼을 때 성령이 우리 위에 역사하는 영향이나 통제를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그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성령이 우리 삶을 통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스스로 성령께 우리를 맡겼을 때 성령이 우리 위에 역사하는 영향이나 통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능력

을 사용하여 우리를 제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순종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줍니다.

이런 의미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성령의 영향과 통제 아래 두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삶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충만” 할 수 있습니다:

- | | |
|-------|-------|
| • 분노 | • 슬픔 |
| • 두려움 | • 자만심 |
| • 질투 | • 사랑 |
| • 죄책감 | • 걱정 |

성경에서도 “충만”이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눅 6:11; 행 5:17; 13:45).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그것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성령과 연관해서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

은 논리적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이나 술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성령의 영향력이나 통제 아래 둡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된 사람이나 성령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 이외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을 통제하게 합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시대에는 이방종교의 종교의식에 따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술에 취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러한 논리적인 비유를 사용한 것은 그의 생각 속에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아무런 생각 없이 본다면, 한 무리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것과 이교도의 무리가 술에 취해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외견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유사함은 이미 지적인 것처럼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술에 취해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는 정상적일 때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종종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 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분별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건전 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안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 걸음걸이가 다르다	• 걸음걸이가 다르다
• 말투가 다르다	• 말투가 다르다
• 행동이 다르다	• 행동이 다르다
• 생각이 다르다	• 생각이 다르다
• 느낌이 다르다	• 느낌이 다르다
술의 통제를 받은 결과	성령의 통제를 받은 결과
분별력이 손상을 입는다	분별력이 향상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만큼 분노에 영향을 받아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과 행동을 하게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증오심에 휘둘려 모든 것에 대해 불경스

럽고 모독적이고 반항적이고 반역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에 크게 영향과 통제를 받아 성령이 속속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 하나님의 도덕적 특성을 반영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고 참을성 있게 되어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지칭한 덕목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갈 5:22, 23).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의 신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5:18).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성령이 당신을 계속 가득 채우게 하고 유지하게 하라”, 혹은 “성령이 당신을 채우도록 계속 내어드리라.”

그러나 이 명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까요?

우리는 가슴이 벅차다거나 행복으로 가득 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흥분이나 행복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가득하여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젊은 여인이 처음 약혼했을 때 그녀는 때때로 너무 마음이 벅차고 행복해서,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

을 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하라고 말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채워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영향을 받고 통제를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라는 결정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쪽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없어서는 안될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1)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2) 말씀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3) 순종해야만 합니다, (4)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본이 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각형의 형태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원칙 1: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원칙은 우리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바라는 것들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뜻을 따르려는

1.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

성령 충만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될 때 성령님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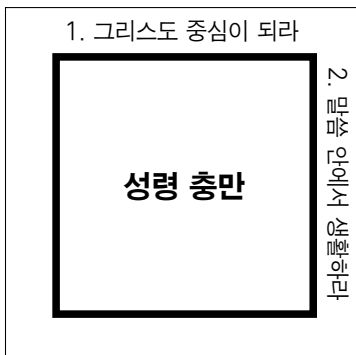
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성령)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 16:14). 행복한 결혼생활에서 아내와 남편은 상대방이 영예롭게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와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딛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 성찬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통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전 11:23-26).
-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 13:15; 빌 2:5-11; 벧전 2:21-24).
-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를 닮아가야 합니다 (빌 3:10-14).
-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후 5:8; 빌 1:21-23; 딤후 4:6-8).
-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고후 5:10).
-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에 위안을 받아야 합니다 (히 4:14-16).
-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 속에 사는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정결해야 합니다 (요일 3:2,3).
-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 2:1-4; 렘 23:5,6; 계 20:1-4).
-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그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빌 2:9-11).

성령님은 자신이 조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기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협력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기본이 됩니다.

원칙 2: 말씀 안에서 생활하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맞을 때 마다 성경구절이 자동적으로 마음에 떠오르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18)고 명령하기에 앞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고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

니까? 먼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함” (벧후 1:21)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주 예수님께서 사탄과 만난 일에서 잘 증명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갔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라고 썼습니다 (눅 4:1,2). 사탄의 시험에 주님은 성경 말씀 특히 신명기 8:3, 6:13, 6:16을 인용하며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순수한 인간성을 입고 계셨으므로 다른 소년들처럼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 (눅 2:52)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을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 하셨던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서 5:17, 18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3:16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

고” 라고 하여 둘의 같은 연관관계를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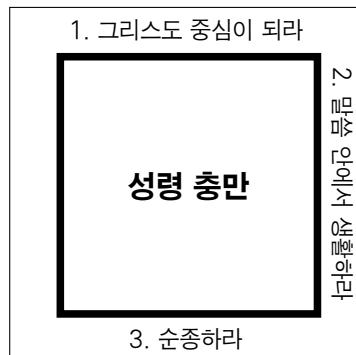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설명했던 에베소서 5:19, 20 과 거의 동일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부하게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당신이 만약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충분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 17) 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으로 바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완전하게 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 없이는 성령 충만 할 수 없습니다.

원칙 3: 순종하라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18 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 복종하는 태도를 가르쳐주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구절의 뒷부분은 “계속하여 성령 충만

하라” 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성령 충만이 가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비유한 바울의 논리는 굴복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 성령이 당신을 계속 채우도록 하라” 고 말했습니다 (문자적 해석). 술에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만약 술에 완전히 취하게 되면 술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자신을 채우게 하고 그 상태를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영향과 통제 아래 둡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성령을 소유하

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통제를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는 습관적인 죄성의 노예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한 때 그를 지배했던 그 습관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15-4:10에서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5:18-6:9과 일치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고 말하며 (3:16) 바울 자신은 복종하는 태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할 때 스스로를 하나님의 통제와 영향력 아래 두십시오. 성령이 당신을 채우게 하는 것과 (엡 5:18)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한 (골 3:15, 16) 결과는 꼭 같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상호 권면과 찬양과 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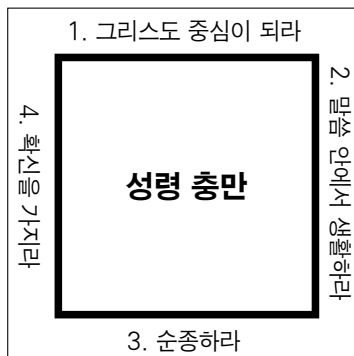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 성경 말씀이 육신의 죄를 “벗어 버리라” “죽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입으라” (엡 4:17-5:7; 골 3:5-17)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을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요일 1:9).
-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결혼상대가 되고 좋은 시민이 되며 좋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엡 5:2-33; 벨전 2:11-3:17).

원칙 4: 확신을 가지라



성령 충만의 네 번째 기본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때, 당신이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당신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당신 쪽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도 하셔야 할 일을 다하셨

음을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 영적으로 충분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른 믿는 사람들과 당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이적을 계속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당신을 휘감는 어떤 뜨거운 것이 임하는 경험을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을 다 했고 당신 편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당신이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산다면 그것은 아마도 죄와 대결하는 전쟁에서 패배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함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고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의 하실 일을 할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옛 사람의 강함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과 지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확신에 넘쳤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정도로 솔직하게 그의 옛 죄의 법과 새 사람의 싸움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다고 바르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1-4).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을 좇아” 행하게 됩니다.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 본,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여 죄를 이기는 4가지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 성령의 내재하심을 끊임없이 자각함 (고전 6:19-20).
-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의식적인 의존 (엡 5:18).
-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 (롬 8:4).
- 굳은 의지로 옛 사람 버리기 (엡 4:22).
- 의식적으로 죄를 단절하기 (롬 6:1-2).
- 의로움을 추구하려는 결단 (엡 4:24).

“우리는 자신이 투쟁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강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 속에 존재하며 자라나는 죄의 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피스 토마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의 네 번째 원칙은 확신입니다. 이것은 죄와 싸울 때 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해야 할 부분을 다 행하고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고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

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다 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확신에 차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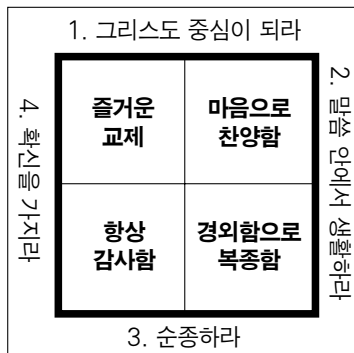
내가 성령 충만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방언을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인이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의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그녀가 성령 충만할 때면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언을 한 마디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맺는 열매를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방언이나 뜨거운 감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엡 5:19-21; 골 3:16과 비교). 그는 갈라디아서 5:22, 23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네 가지 증거



에베소서 5:19-21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네 가지 증거, 곧 기쁨으로 서로 화답함, 마음으로 찬양함, 항상 감사함, 경외함으로 복종함으로 자신들의 성령 충만함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 네 가지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즐거운 교제 -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즐거운 교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19절)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서로 복돋우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찬송하는 것은 그 뿌리를 히브리 사람들의 예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9, 33, 37, 40, 95, 96,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기를 격려하는 몇 안 되는 찬송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함께 찬송합니다. 예를 들면 “주 사랑 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를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빈손으로 가야만 하나?”를 부르면서 서로를 복돋우어 줍니다.

2. 마음으로 찬양함 -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에서 “너희의 마음으로”라는 말은 때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않고 속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16의 말씀 “...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에서 표현된 것처럼 참되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항상 감사함 -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20절).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는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거듭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격려합니다 (빌 1:3; 4:6; 골 1:3,12; 2:7; 3:15,17; 4:2; 살전 1:2; 2:13; 5:18; 딤후 1:12; 2:1; 4:3,4). 그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4. 경외함으로 복종함 -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교만하거나 공격적이거나 독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섬기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홉가지 열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아홉 가지 도덕적 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품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열매들이 마음속에 존재하면 성령 충만의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

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이제 이 영적인 자질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 **사랑** -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 베풀고 봉사하고 용서하라고 우리를 재촉하는 영.
2. **희락** -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둔 기쁨의 영. 찬양으로 표현되고 긍정적인 정신을 동반함.
3. **화평** -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평온.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얻게되는 화평에 기초를 둠.

4. **오래 참음** -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나 까다로운 사람과 교제할 때 인내하는 것.
5. **자비** -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
6. **양선** -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하며 너그러운 행실.
7. **충성** -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
8. **온유** - 다른 사람을 적절하게 훈련시키고 박해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견디며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의 온유함.
9. **절제** - 육체적인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자질.

성령이 당신의 삶에 이 아홉 가지 도덕적 자질의 열매를 맺으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는 말은 모세의 율법이나 어떤 다른 율법에서도 이런 덕목을 반대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한 사람의 삶이 에베소서 5:18-21에서 말하는 네 가지 증거와, 갈라디아서 5:22,23에서 말하는 아홉 가지 도덕적 자질을 보여줄 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달성한 것입니다.

다. 이런 증거와 도덕적 자질이 나타날 때 이것으로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잘못된 답 두 가지

폭 넓은 독서를 하거나 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이 알려져 있는 잘못된 두 가지 견해를 살펴봅시다.

1.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는다.”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심지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지도자들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때때로 “성령을 받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 네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넘어 있지 아니하리라 ...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말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는 구절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베소서 5:18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성령 (Spirit)”이 “거룩 (Holy)”이라는 단어의 수식을 받지 않고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은 인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에베소서 5:18 말씀은 “너의 영혼이 가득 차게 하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증거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16-26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명령하고 그런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1-11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9절).

더 나아가서 “채우다” “가득차다”라는 용어가 성령을 지칭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눅 1:15, 41, 67; 4:1; 행 2:4; 4:8, 31; 6:3; 7:55; 9:17; 13:9).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대비는 사도행전 2:13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에베소서 5:18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바로 서거나 쓰러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한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2. **당신은 두 번째 은혜를 구해야 한다.** 존 웨슬리나 오순절 교파나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충만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극적인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완전한 성화”로 부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완전한 성화란 죄성이 제거되고 성령이 통제하는 은혜의 두 번째 역사라고 봅니다. 오순절교파나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충만을 방언과 더불어 오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런 견해가 갖는 문제점은 신약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은 후에 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롬 5:1). 그리고 구원을 받는 순간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가운데 새롭고 영원하게 태어납니다 (고전 6:19; 벰전 1:22, 23).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많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시는 두 번째 역사나 능력의

“은혜로 주시는 두 번째 역사나 능력의 세례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성화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례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성화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문자대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드리라는 뜻입니다)” (롬 12:1)고 당부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18)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는 교회가 시작되었던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행 2:1-13). 오늘날에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말합니다 (고전 12:13).

어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과 같은 뜻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가 구원을 받은 후 어떤 때에 방언을 말하는 징표와 함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가르침의 근

거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라는 말은 사도 행전에서 두 번 나옵니다 (1:5; 11:16). 그리고 두 번

“성령 세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 언젠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기 전 성령 세례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행 1:4, 5). 그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그 날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행 2:1-13, 32, 33).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세례를 받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날 늦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삼천 명이 믿었습니다 (행 2:41, 42). 그리고 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47).

“성령 세례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또 다른 작은 오순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일을 세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와 조상이 부분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인 신자들 (행 8:14-25),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 (10:44-48),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오순절의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열두 사람 (19:1-7) 들이 그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보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행 11:16, 17).

이 세번의 사례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시작하여 이방인을 모두 품는 변환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변환기가 지나갔을 때 성령세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 인정

“성령세례는 구원 받는 순간에 일어나고 되풀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고전 12:13).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다”로 번역된 구절은 같은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얻는 순간에 일어나고 되풀이되지 않으며 구원을 받은 후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받는 순간에 믿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알아보는 10가지 질문

성령 충만에 대한 모든 주제를 다 살펴본 당신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아래 문항에 성실하게 답하시면 여러분과 성령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나는 성령에 복종하며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 나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배웁니다.
- ☐ 나는 성령께서 죄성에 의한 욕망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교제와 성경공부와 기도를 즐거워합니다.
- ☐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리

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 ☐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존재는 평화롭습니다.
- ☐ 나의 삶 속에서 죄를 발견할 때 곧 죄를 회개하고 다시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 ☐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내합니다.
- ☐ 나는 성령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구체적인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 ☐ 나의 절제하는 힘이 점점 성장합니다.

“어느 성령 충만한 사람”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 임원의 한 친한 친구는 자신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강단에서 설교 할 때 자신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도 젊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개념과 씨름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45년 이상 나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내가 열여덟 살 젊은이였을 때 나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도 나누어주고 야외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께 도와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

무 보잘것없게 느껴졌고 성령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초라한 감정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나의 노력을 축복해주셨고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시다

내가 스물 셋이 되어 군대에 있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을 받기 위해 오순절교회로 곧장 갔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성경공부 반에 들어갔을 때 오래 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성령께서 내 삶에서 진실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확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경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다른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내게 확실하고 승리에 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역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해주셨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영적 승리와 사탄의 패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생활과 나의 사역에 있어서 나는 아직 완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기적이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나는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경쟁 심이 너무 강합니다. 때로는 죄의식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는 죄를 짓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경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그는 온유하고 인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마 옳을 겁니다 -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맺는 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열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경공부 시간을 가짐으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죄를 고백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억누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한국 오늘의 양식사

있으면 당신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의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당신의 삶으로 모셔들이기 위해서는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당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엡 2:8, 9). 그리고 그리스도께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 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죄에서 돌아서서 믿음 안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1) 780-9565~7

F A X : (031)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odb.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816

■ 현금 안내

「오늘의 양식」은 독자들의 현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권당 450원 이상을 현금하시면 제작비에 사용되며 문서선교사역이 확장됩니다.

온라인 계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아선교원」

국민 : 097-01-0199-703

우체국 : 012773-01-000710

농협 : 001-01-214911

제 일 : 107-10-109840

외환 : 026-13-33750-7

조 흥 : 308-01-137748

우리 : 132-05-108980

하 나 : 273-810047-19305

■ 섬기는 분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신표근 위원장/정영원 번역/강희숙

신앙 성장 시리즈 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인 쇄 / 2003. 9. 18.

발 행 / 2003. 9. 20.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1)780-9565~7

- 좌절감, 고독, 슬픔에 잠길 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 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 3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 4 복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 5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 6 왜 살아야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 7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 8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 9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 10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 11 다시 찾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길
-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 하루 하루 성장하는 삶의 지침서
- 14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평생드리는 귀중한 예배,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예배의 안내
-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 얻는 부모의 영적 평안함
- 16 결혼의 약속**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한 결혼의 4가지 단계
- 17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길
- 18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구원의 신앙
- 19 균형있는 기독교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대담
- 20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 나가는 길
- 21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론

「오늘의 양식」 「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헌금안내																									
청원 및 헌금자						청원자 번호								전 화											
주 소																									
발 단 사 람		성 명					직 분								접수자										
		주 소									전 화				H · P										
우 편 번 호						부 수				부				구독기간:				년 월 ~ 년 월				()은행			
구 분		① 신규				② 주수변경				③ 부수변경				④ 재신청				⑤ 취소						현금입금은행 : (
시리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신 청 부 수																									
<p>「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시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45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